

푸른도서관



세종중학교 도서관 소식 첫호 / 2006. 3. 6.

[소식]



도서관 문 열어요 4층, 1-1반 교실 옆

점심시간(12:50-13:45)에 도서관 문 열립니다. 아직 진급 처리가 되지 않아 책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세종중학교 학생이면 누구든지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.



지켜주세요

- 과자나 음료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.
- 책을 찢거나, 밑줄 긋거나 낙서하지 않습니다.
- 책을 꺼내 본 다음 반드시 원래 위치에 가져다 꽂습니다.
- 이용한 다음 책상 위를 정리하고 의자를 밀어 넣는다.

[책 읽고]

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

-‘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’를 읽고
이강진(2학년)



나는 이 책을 도서실에서 빈둥거리다 우연히 읽게 되었다. 레오 니콜라비치 톨스토이가 쓴 이 책은 감동스럽고 교훈을 주었다. 두 아이의 영혼을 풀어주고 벌을 받은 천사 미하일이 잘못된 것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

미하일은 인간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. 어느날 하느님이 질문 세 가지를 하게 된다. 첫 번째, 사람의 내부에 뭐가 있나? 그것은 사랑이다. 모든 사람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난 깨달았다. 그렇게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된다. 두 번째,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? 이것은

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이다.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요즘 사람들에게겐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다. 나도 이 대사를 읽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. 무엇보다도 나를 감동시킨 건 하느님의 마지막 질문, ‘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’에 대한 답변이었다.

바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다.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. 나 역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.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.

남을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반성과 아픔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 사람들이 이런 좋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.

[나랏말 사랑]



‘설렘’과 ‘설레임’ 어느 게 맞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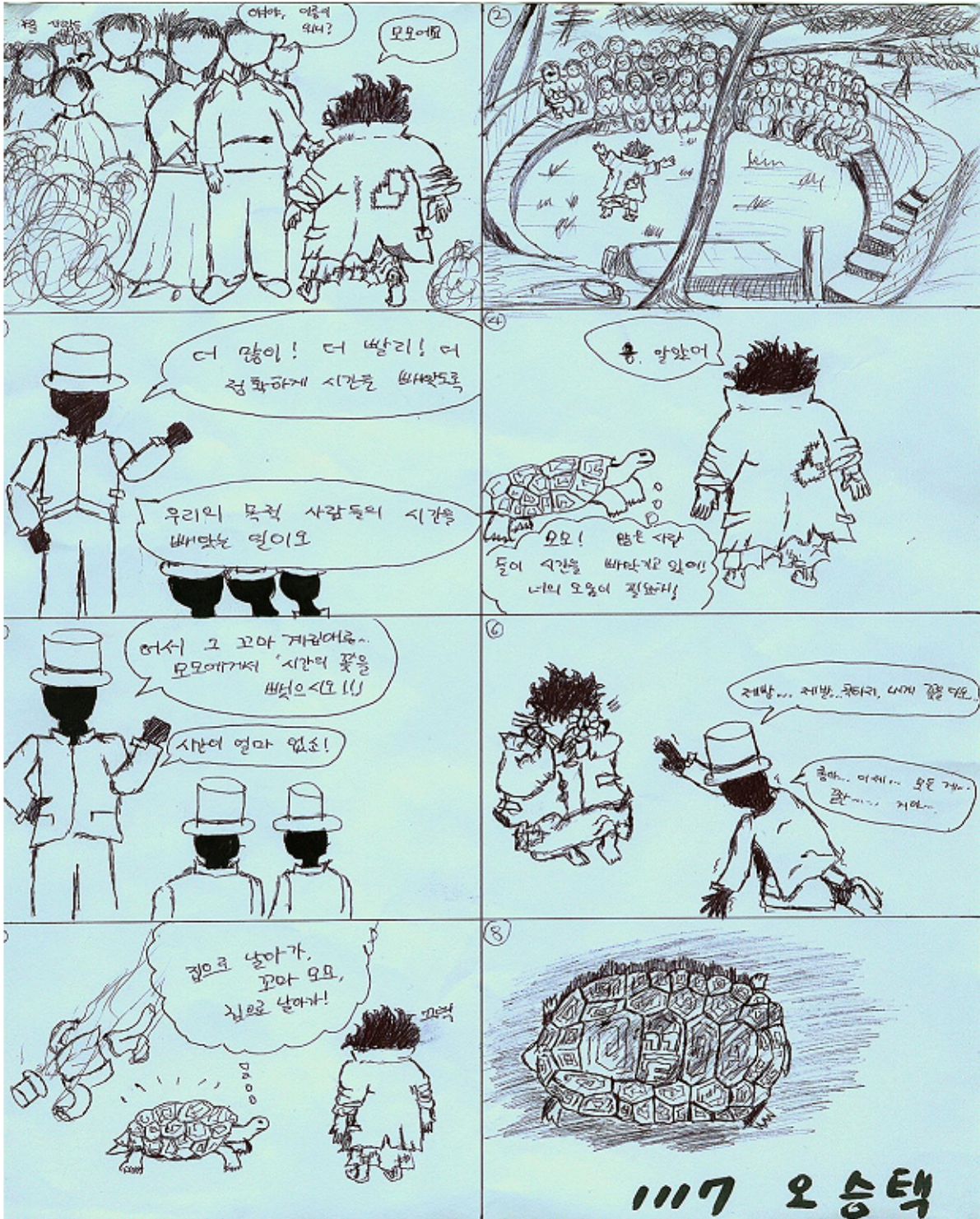
▶ ‘설렘’이 맞습니다. ‘설레다’가 활용하면 ‘설레어, 설레니, 설렘, 설레었다’가 되고, ‘설레이다’가 활용하면 ‘설레여, 설레이니, 설레임, 설레었다’가 됩니다. 그런데 ‘설레이다’는 ‘설레다’의 잘못입니다. 그러므로 ‘설레여, 설레임, 설레었다’는 모두 ‘설레어, 설렘, 설레었다’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. <국립국어원 <http://www.korean.go.kr>>

[알림]

▷도서관에서 맘껏 책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.

▷도서관 소식 <푸른도서관>에 글이 실린 사람에게는 선물을 줍니다.

‘모모’ 이야기 / 오승택(2년)



①마을 사람들 : 애야, 이름이 뭐니? / 모모예요.

③더 많이! 더 빨리! 더 정확하게 시간을 빼앗도록 / 우리의 목적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입니다.

④모모,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! 너의 도움이 필요해! / 응, 알았어.

⑤시간이 얼마 없소! / 어서 그 꼬마 계집애 모모에게서 '시간의 꽃'을 뺏으시오!

⑥제발...제발...착하지, 내게 꽃을 다오. / 좋아...이제...모든 게...끝난...거야.

⑦집으로 날아가, 꼬마 모모, 집으로 날아가! / 끄덕